

■ 서평

역사적 전환기에 새롭게 구상하는 '민족문학론'

—고명철 『1970년대의 유신체제를 넘는 민족문학론』(보고사, 2002)

유 승 호*

I.

고명철의 『1970년대의 유신체제를 넘는 민족문학론』(보고사, 2002)은 저자의 학위논문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출판된 연구서이다. 이 책은 1970년대에 개진된 다양한 비평담론을 '민족문학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1970년대 문학 연구가 개별 작가론이나 작품론을 중심으로 그 초입에 들어섰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연구서는 비록 비평사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당대의 다양한 문학적 쟁점을 거시적 안목을 통해 재구성하여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민족문학론'의 역사성을 재구성함으로써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민족문학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¹⁾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1) 저자는 현재의 '민족문학론'의 위기 혹은 담보 상태를 자체적인 갱신을 위한 노력부족과 함께 '전지구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확립 속에서 행행한 다양한 해체적 담론들의 유행을 들고 있다. 아마도 90년대 붓물같이 터졌던 'post'라는 약호를 달고 개진된 무수한 담론은 이를 예증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은 전적으로 부정적 속성을 가진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즉 70, 80년대를 거치며 현실에 역동적으로 개입하면서 형성되었던 '민족

파행적 근대화로 점철된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노력한 문학적 흐름을 상기시키며 저자는 이러한 '해방의 근대성'의 성취를 가로막고 있던 세계의 모든 위악적 요소들에 대결하였고 여전히 응전중인 문학의 '현실 비판력'과 '저항성'의 면면한 흐름을 '민족문학론'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저자는 1970년대 문학장에 있어 이 문제를 前 時期 4·19 혁명으로 촉발된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인간해방의 역사적 변혁의 움직임과 5·16쿠데타를 기반으로 형성된 '유신체제'라는 폭압적 지배세력의 대결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전시기 1960년대 '참여문학론'을 통해 강력하게 제기된 현실비판과 저항의 목소리를 비판적으로 이어받고 있는 1970년대의 '민족문학론'의 관계성을 복원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즉 '민족문학을 역사화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개된 민족문학론의 방향을 면면히 살펴보면, 민족문학론에 대한 자기성찰을 통해 갱신의 비평담론을 모색'²⁾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족문학론의 현재를 현재로서가 아니라 역사로서 상대화하는 방식, 즉 역사철학적 근대성의 인식틀에 의해 현재 당면한 민족문학(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16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학론'이 어느 정도 그 담론적 입지점을 확보하면서 그것이 추구하였던 '보존과 폐기의 변증법적' 속성을 상실한 채 현실에 안주하며 급변하는 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인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분단체제와 전지구화하는 초국적 자본주의의 악무한적 속성에 노출된 채 다양한 민족적, 계급적, 계층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민족문학론'이 추구하였던 이상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긴 역사적 도정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국면 속에서 '민족문학론'을 부정 혹은 해체하려는 담론들은 오히려 '민족문학론'의 새로운 전환과 갱신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담론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보존과 폐기의 변증법적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를 포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초국적 자본주의 혹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갈파하고 그것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 바로 새롭게 발명되어야 할 '민족문학론'은 구상될 수 있는 것이다.

- 2) 고명철, 『1970년대의 유신체제를 넘는 민족문학론』, 보고서, 2002, 16면. 앞으로 이 책에서 인용할 때는 별도의 각주 없이 본문에서 면수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이처럼 저자는 현실변혁과 저항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인간 삶 속에 기투(企投)하며 생성되어온 정신을 자신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민족문화(론)'의 입각점으로 해서 1970년대에 개진된 그것의 구체적인 비평담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파행과 파괴로 점철된 왜곡된 근대화를 극복하고 자주적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온전한 근대성의 실현과 냉전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분단체제의 해소를 갈망하였던 진정한 '민족문화론'의 역사적 모습을 복원하여 이를 통해 오늘의 그것을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크게 세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체화되고 있다.

첫 번째는 민족문화론의 큰 문제들을 이루는 '리얼리즘론'에 대한 탐구이고 두 번째는 그와 연장선 속에서 개진된 '농민문화론'에 대한 성찰이며 마지막으로 1970년대말 개진된 '제3세계문화론'에 대한 평가이다.

II.

상기한 세 개의 탐구대상은 1970년대 문학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비평적 쟁점들이다. 물론 이들 각각의 담론들은 시기적으로 그 형성에 있어 출발은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들이 독자적 담론의 형태를 띠고 갑작스럽게 우리 문학장에 대두된 주제는 아니다.

우선 저자는 이 점을 1960년대 우리 문학장을 뜨겁게 달구웠던 '참여·순수논쟁'의 담론적 성과와의 관계성을 통해 구명하고자 한다(2장의 1절). 바로 1960년대 '순수참여논쟁'이 성취한 '문학의 對 사회적 기능 회복'이라는 문학사적 성과를 당대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모색되었던 1970년대의 문학적 흐름, 즉 그러한 문제의식이 과연 어떻게 심화, 확대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역사적 연장선상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연장선 속에서 1970년대 생성

되고 있던 '민족문학론'³⁾은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상기한 담론들은 부분의 독자성을 가지는 주제임에 분명하지만 그것은 바로 포괄적으로 '민족문학론'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담론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중층적 관계의 연결망을 고려할 때만이 그것이 협소한 문학장 속의 비평적 논쟁의 차원을 넘어 문학사에 있어 온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상기한 주제 혹은 담론들은 '1970년대를 전횡적으로 지배한 유신체제의 엄혹한 현실에 대응해내야 할 참여문학의 또 다른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54면) 시점에서 생성된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1970년대의 '리얼리즘'론은 당대의 이러한 문학적 갈망을 처음으로 개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의의 시작은 1970년도 4월 월간 <사상계>가 마련한 '4·19와 한국문학'이라는 좌담을 계기로 촉발되게 된다. 당시 참여자였던 김윤식, 구중서, 김현 간의 논의 중 구중서와 김현이 상호 의견상의 대립을 보이게 되는데 좌담은 서로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는 듯 하다가 이후 다른 지면을 통해 각자가 '리얼리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덧 이 문제에 대한 옹호자와 반대자가 합세하게 되는 형국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임현영, 염무웅, 그리고 김동리로 대표되는 순수문학론자들이 각

3)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1970년도 10월 『월간문학』이 특집으로 기획한 <민족문학논의>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적 담론을 주목한다. 여기서 개진된 민족문학론은 한마디로 '1970년대의 민족적 현실(유신체제 아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문학적 저항의 일환으로 파악되는 민족문학이 아니라 민족문화적 전통에 입각한 관념적 민족문학을 반복적으로 환기하는 측면'(66면)이 강했다. 이는 저자의 지적처럼 '민족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구체적 삶을 민족자체의 추상적 삶으로 대체함으로써 민중 개인의 삶을 유신체제라는 지배질서의 규율로 통제한다. 이때 민족문화적 전통은 국가권력에 의해 복고적·회고적인 관념적 차원으로만 파악된 나머지 이러한 면에 주목한 민족문학이 관주도의 민족주의 담론에 흡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67면) 이에 임현영, 염무웅, 강만길은 이러한 관주도 '문화적, 관념적 민족주의'를 비판하며 진정한 민족주의 혹은 민족문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구체적 실천에 있음을 갈파한다.

기 시기를 달리하며 그것의 옹호와 반대의 다양한 입론을 펼친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의 형성과정에서 정작 부각된 것은 이론적 성찰과 개념에 대한 명징한 인식이라기보다 당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문제가 불거졌다는 사실이다. 즉 대부분의 '반리얼리즘' 논자들이 상대방의 입론에 대응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것을 편협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것으로 치부하며 이념적 공격에 치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대 공고하게 구축된 냉전의식을 바탕으로 '유신체제'의 지배권력에 쉽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었다.

사실 당시 논의된 '리얼리즘론'의 다양한 쟁점 중 원론적이며 이론적인 개념에 대한 것은 해방 전 우리 문학장에서 개진되었던 '리얼리즘론'의 성과를 생각한다면 별반 진전을 이룩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학적 흐름이 한국전쟁 이후 단절되었다가 당대의 역사적 국면 속에서 새롭게 복원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리얼리즘이 환기하는 강한 '현실주의적 속성'과 '저항'의 성격에 주목한다. 즉 이러한 속성은 당대 제기된 '민족문화론'의 구체적 실현체로서 긴요한 문학적 문제들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실 당대 지배권력과 일부 순수 문학론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민족' 문제에 대한 입론은 추상성과 관념성에 매몰되어 당면한 민족현실의 다기한 문제를 몰각한 채 지배체제(유신체제)의 재생산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조작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에 리얼리즘론을 바탕으로한 민족문화론은 이러한 체제순응적인 의사(擬似)민족주의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한다. 이 점에서 강한 현실주의적 속성을 가진 '리얼리즘론'은 자연히 저항적 '민족문화론'과 그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부각된 것이 바로 그 저항과 비판의 주체 설정 문제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민중'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점을 '문학이 제기하는 상징의 힘과 이상징을 해석하는 데서 오는 힘(57면)'이 도달한 소중한 성과로 주목하고 있다. 즉 이러한 '민중'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성찰은 당대 현실이 직면

한 다양한 사회적 모순과 억압의 실체로서 '유신지배체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대항할 주체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구체적 민중의 삶에 밀착한 '리얼리즘의 실현'이라는 전망 속에서 형성된 '농민문학론'의 문제의식과도 밀접하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민문학론'은 이러한 당대의 역동적인 '민족문학론'의 담론형성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개발독재에 의해 본격적인 산업화시대로 접어든 1970년대의 현실에서 사회경제적 구조의 첨예한 모순을 안고 있는 농민은 민족문학론의 입장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학적 탐구(133면)'의 대상이었고 바로 그 문제의식의 적실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것은 '이론의 추상화에 매몰됨으로써 리얼리즘의 이론적·실천적 근거인 객관 현실의 실체가 담론의 영역에서만 주장될 수 있는 터에, 1970년대의 사회경제적 모순이 집약되고 있는 농촌의 객관현실과 이를 구체적으로 담지하는 문학주체로서 농민을 발견(139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성찰과 안목에도 불구하고 당대 제기된 '농민문학론'은 민중의 실체로서 '농민' 스스로가 자신의 주체적 역량을 발견하고 각성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농촌현실과 실제적 거리를 두고 있는 각성된 '지식인'에 의해 그들은 새롭게 구성되고 발견된 것으로 이러한 이론적 실천이 구체적 현실과 접맥하여 뿌리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론적 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인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농민문학론은 '개발독재로부터 야기된 문제점이 집약돼 있는 농촌과 농민의 객관현실을 민족문학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함으로써 민족문학론의 탐구 대상이자 주체이기도 한 농민-민중의 구체적 실체를 발견해(135면)' 냈다는 점과 아울러 '민족문학론의 방법적 원리이자 세계

관이기도 한 리얼리즘론이 당위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농민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그 뚜렷한 실현 대상을 갖게 되었다(136면)' 면에서 한계성 못지 않은 성과를 동시에 성취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1970년대에 개진된 '민족문화론'은 그것의 실질적 주체와 그것의 구체적 실현 방향을 모색하면서 문제의식을 '제3세계 민족문화론'으로까지 심화 확대시키게 된다. 이는 당대의 민족문화론이 자칫 '민족'이라는 개념이 환기하는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의 국수주의로 빠질 위험성과 아울러 서구 제국주의의 편협한 민족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에 많은 부분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한 결과이다. 동시에 당대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제3세계 국가의 출현'과 그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여기서 제3세계 민족문제와 우리의 민족문제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제국주의의 침탈과 식민지라는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바로 타자에 의해 자생적인 근대국가로의 진입을 봉쇄당한 상황에서 착취와 억압으로 점철된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고 자력적인 근대화를 이룩하여야 할 과제를 제3세계 국가와 우리 모두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제3세계가 현상적으로 볼 때 종래의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했으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도화된 형식적 독립에 그칠 뿐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 민중의 경우 그 무의식의 세계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식민성의 잔재가 침전되어 있다는 점과 이 무의식적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않는 한 제3세계는 정치·군사적 독립을 쟁취했는지라도 제3세계의 일상성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식민성으로 인해 또 다른 문화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210~211면)'는 공통의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저자는 강조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민족현실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되 그것을 국소적인 자국의 문제만으로 국한 짓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로 확대시킬 필요가 대두하는 것이다. 이를 예각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것이 구중서와 백낙청, 염무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3세계 민족문화'에 대한 일련의

논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당대 '민족문화론'이 우리의 현실이 직면하고 있던 유신지배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자칫 상기한 민족주의 폐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화된 '민족문화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평가한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던 '분단체제'로 상징되는 민족모순과 개발독재로 야기된 다양한 경제적 궁핍의 계급 모순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재편된 세계질서와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구축된 결과물임을 환기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즉 이러한 다기한 민족 내부의 문제점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특수한 우리의 현실적 상황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그것을 전세계적 문제로 심화 확대시켜 볼 수 있는 시야 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이에 부응하여 형성된 담론이 바로 '탈식민'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제3세계 민족문화론'이라는 평가인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1970년대 '민족문화론'과 관련하여 개진된 다양한 비평 담론을 고찰하여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새롭게 갱신되고 발전되어야 할 '민족문화론'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

1970년대 남한이라는 현실세계는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모아 자주적 근대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분단의 상흔을 치유해야 하는 문제가 절실히 요청되던 시기이다. 즉 식민지라는 외세에 의해 왜곡된 근대화의 파행성을 극복하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세계 냉전체제의 부산물인 분단체제는 당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역사적 모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모순을 혁명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바로 1960년대의 시작을 알린 4·19혁명이었고 이에 대한 문학적 응전이 '참여·순수 논쟁'이라 할 수 있다면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형성된 1970년대의 상기한 '민족문화론'은 역사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학적 흐름이다. 저자는 이러한 저항과 현실비판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1970년대의 '민족문화론'이 그것을 폭력적으로 압살

하려는 유신지배체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맞서며 삶의 곳곳에 내재하여 저항의 기운으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조국근대화'라는 명목 하에 광폭하게 진행되던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기술의 근대성'을 지양(止揚)하며 '해방의 근대성'을 실현하는 것과, 분단체제의 모순, 반공이데올로기의 폐해를 극복하고 나아가 통일을 염원하고 있던 '민족문화론'의 정신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자의 역사적 재구를 통한 '민족문화론'의 현재화 작업은 지금, 여기의 우리가 그것이 제기하였던 과제를 완전하게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연구의 적실성과 아울러 그 의의가 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